

# 전남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송 태 갑(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목 차 |

### <요 약>

- I. 시작하며
- II. 전남의 주요축제 현황 및 특성
- III. 지역축제에 대한 의식조사 및 결과
- IV.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 〈요약〉

본고는 2009년 상반기에 치러진 전남의 주요 축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정리하였고, 아울러 1999년에 조사한 축제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과제와 잠재력, 그리고 발전방안 등을 제시함.

### 1) 의식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2009년 상반기에 개최된 전남의 지역축제 가운데 지역특성과 축제주제 등을 고려하여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4.25~4.27)”, “함평 나비대축제(4.24~5.10)”, “장성 홍길동축제(5.2~5.5)”, “담양 대나무 축제(5.2~5.7)” 등을 선정하여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아울러 1999년의 의식조사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지역축제에 관한 의식 변화의 경향을 살펴보았음.

#### □ 2009 지역축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 축제에 대한 정보입수는 주로 “친구나 지인(35.6%)”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 동반자는 “가족”이 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축제 참가 교통편은 주로 “자가용(61.7%)”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일정은 “당일코스(72.4%)”가 대부분이며, 여행비용은 “5만원 이하(26.6%)”가 가장 많음.
-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68.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7.1%에 그치고 있음. 또한 축제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이라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교통체증 및 주차장(20.9%)”이라고 응답함.
- 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7%가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했고 “부정적이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함. 또 축제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35.0%)라고 응답함.

- 전남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축제수가 너무 많음(44.9%)”이라고 응답했고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축제(39.4%)”라고 응답함.
- 차기 축제의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참가의사가 있다”(64.7%)고 응답했으며 반면 불참가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21.1%에 그치고 있어 차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1999년~2009년의 의식조사 결과 비교검토

- 축제에 관한 정보수집은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TV 등 매스컴(52.3%)”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9년의 경우 “친구나 지인(35.6%)”이라고 응답하여 축제에 관한 정보수집경로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축제에 대한 정보가 참가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방문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홍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축제 방문시의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가용(65.8%)”이라고 응답하였고 2009년 역시 “자가용(61.7%)”이라고 응답하여 자가용이 주요 교통수단인 점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1999년의 경우 “관광버스”이용자가 7.2%인 것이 2009년의 경우 19.9%로 증가하여 단체관광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생각됨.
- 축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1999년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73.3%이었는데, 2009년의 경우는 68.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이 결과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말해줌.

- 축제의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1999년의 경우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24.9%)”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9년의 경우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이라고 응답함. 이는 그동안 축제행사장 및 주변 경관정비 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식개발, 행사내용이나 진행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축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통체증 및 주차장(37.0%)”이라고 응답했고 2009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 및 주차장(20.9%)”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1999년의 경우 “비싼물가”가 26.6%인 반면, 2009년의 경우 “비싼물가”가 17.9%로 감소함. 이는 행사장 주변여건 및 비싼물가 등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나 오히려 축제행사나 내용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다소 증가하여 축제의 내용에 대한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축제의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사장의 무질서(28.5%)”라고 응답했는데 2009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사장의 무질서(21.0%)”라고 응답함. 이에 따라 향후 축제행사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디자인강화를 통하여 이용측면이나 시각적인 면에서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제언

지역축제의 현장조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남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지속가능한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써 지역축제를 인식하고 개최해야 함.

둘째,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찾아내어 가로공간, 건물, 친수공간(Waterfront), 전통문화공간 등이 그 이미지에 맞게 공간과 장소성을 살린 지역 고유의 독창적인 경관 연출이 요구됨.

셋째, 축제의 주제와 취지에 부합되는 고유의 대표 이벤트를 발굴·육성해야 함.

넷째, 기금조성 등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축제개최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축제전문기구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여섯째, 축제와 지역자원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의 인심과 최상의 서비스를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일곱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축제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안내판, 표지판 등 사인계획에 있어서도 축제의 주제에 부합되면서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상징성, 조화성 등을 갖추는 등 전체적으로 축제이미지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함.

아홉째, 이벤트와 관광을 위한 안내, 홍보, 정보제공 등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축제를 전국화, 국제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열째, 본문의 설문조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남의 대표축제의 분야로는 “경관 및 생태환경축제(39.4%)”라고 응답한 것을 참고로 하여 기존 축제를 더욱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남의 우위자원인 도서·해양자원을 활용한 신규축제의 발굴을 통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 I. 시작하며

- 민선자치제 이후 도시 및 지역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립기반형성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따라서 그 돌파구로서 비교적 대대적인 투자를 요하지 않으며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관광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처럼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한층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관광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축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남은 자연, 역사, 인물 등 잠재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축제를 개발하여 해마다 각 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 축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체감형성과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상반기에 치러진 전남의 주요 축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정리하였고, 아울러 1999년에 조사한 축제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과제와 잠재력, 그리고 발전방안 등을 제시함.

## II. 전남의 주요축제 현황 및 특성

### 1. 2009년 전남 축제현황 및 특징

#### (1) 지역 축제의 개최 현황

- 2009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는 총 57개에 이르며, 이를 계절별로 보면 봄(3~5월)에 개최되는 축제가 24개, 여름(6~8월)에 개최되는 축제가 6개, 가을(9~11월)에 개최되는 축제가 21개이고, 겨울(12~1월)에 개최되는 축제는 6개임.
- 이처럼 봄,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가 45개로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함으로써 계절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역시 봄, 가을이 축제의 계절임을 알 수 있음.

<표 1> 2009년 전남의 지역축제 현황

지역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목포 (4)	2009 유달산꽃축제	2009년 4월 3일 ~4월 5일	유달산축제, 북항회축제
	제4회 목포해양문화축제	2009년 7월31일 ~8월 4일	바다와 빛의 향연
	제7회 목포바다 은빛갈치 축제	2009년 9월 말 ~10월 초	갈치낚시, 갈치요리, 어회판매, 도다리낚시대회
	목포 선상 해넘이·해맞이 축제	2009년 12월31일 ~2010년1월1일	낙조관람, 모듬북공연, 띠배띄우기, 선상불꽃놀이 등
여수 (6)	제17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2009년 4월 3일 ~4월 5일	화합한마당, 추억의 엽서쓰기, 산사음악회 등
	2009 여수 거북선대축제	2009년 5월 2일 ~5월 4일	거북선 문화체험 등
	제9회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	2009년 8월 7일 ~8월 9일	전통 떼배 체험, 갈치낚시투어, 거문도벚노래 시연 등
	제2회 여수세계불꽃경연 대회	2009년 9월11일 ~9월12일	대북 난타공연, 참가팀 불꽃쇼 등



여수 (6)	제2회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	2009년 9월19일 ~9월20일	해상퍼레이드, 갯벌 걷기 체험, 개매기(고기잡기) 체험, 고막 잡기 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등
	제13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	2009년 12월31일 ~2010년1월1일	제야의종 타종, 일출제례, 신년축하 불꽃쇼 등
순천 (3)	제6회 낙안민속문화축제	2009년 5월 3일 ~5월 5일	동편제 학술세미나, 국악공연, 어린이 사생대회 등
	순천만 갈대축제	2009년 10월17일 ~10월25일	생태 체험, 환경체험, 갈대 움집 만들기 등
	제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2009년 10월29일 ~11월 1일	남도명인음식전시/판매, 경연, 체험, 상설/부대행사 등
나주 (1)	제6회 나주영산강문화축제	2009년 10월23일 ~10월25일	나주목사 행차, 나주 들노래 시연, 나주목사 모의재판 등
광양 (3)	제13회 광양 매화문화 축제	2009년 3월14일 ~3월22일	매화사진촬영, 음악회
	제11회 광양 전어축제	2009년 9월 중	선상음악회, 전어잡이노래 시연, 재첩비빔밥 만들기
	제9회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2009년 10월 중	광양풍물굿 경연대회, 조명불꽃쇼,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 등
담양 (1)	제11회 담양 대나무축제	2009년 5월 2일 ~5월 7일	대나무 뗏목타기, 수상 자전거 타기, 대통술 담그기, 대나무종이 만들기 등
곡성 (1)	제9회 곡성 심청축제	2009년 9월24일 ~9월27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행체험
구례 (4)	제11회 구례 산수유꽃 축제	2009년 3월19일 ~3월22일	풍년기원제, 풍물공연, 산수유꽃길 걷기대회 등
	제6회 섬진강변 벚꽃 축제	2009년 4월 3일 ~4월 5일	청소년 풍물단공연, 섬진강변 벚꽃길 걷기 등
	제65회 지리산 남악제	2009년 4월18일 ~4월20일	남악제례, 향제줄풍류공연, 지리산녀 선발대회 등
	제33회 구례 지리산 피아골단풍축제	2009년 10월 중	단풍길걷기, 단풍노래자랑, 지리산 등반체험 등

고흥 (1)	제10회 녹동바다 불꽃 축제	2009년 5월14일 ~5월17일	바다불꽃쇼, 축하쇼, 노래자랑, 지역특산물판매 등
보성 (2)	제35회 보성 다향제	2009년 5월 8일 ~5월11일	차문화, 체험행사 등
	제12회 보성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2009년 10월17일 ~10월18일	전국명창대회, 전국고수대회, 반세대간 어울림
화순 (1)	제2회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	2009년 10월14일 ~10월18일	고인돌 축조재현 등
장흥 (4)	제38회 장흥 보림문화제	2009년 4월30일 ~5월 1일	등불행진, 향우와 어울림의밤, 열린음악회, 폭죽놀이 등
	제19회 제암철쭉제	2009년 5월 3일	철쭉제례, 철쭉선아 선발대회, 꽃씨풍선 날리기 등
	제2회 정남진 물축제	2009년 7월29일 ~8월 2일	통일기원 물합수식, 물 관련 포럼, 설치미술전 등
	제16회 장흥 천관산 역사제	2009년 10월10일 ~10월11일	전야제: 가요열창, 본행사: 역사 제례, 역사아가씨선발 등
강진 (4)	제4회 영랑문화제	2009년 4월24일 ~4월29일	영랑시화전, 전국영랑백일장대회, 영랑시낭송대회, 모란예술제 등
	제9회 다산제	2009년 5월 8일 ~5월10일	다산관광해설대회, 다산기념강연회, 다산명전, 다산회호대회 등
	제37회 강진 청자문화제	2009년 8월 8일 ~8월16일	청자공모전, 물레성형대회
	제3회 마량미항축제	2009년 10월 중 (9일간)	떼배입항재현, 송어잡이체험, 바다낚시대회 등
해남 (4)	제18회 초의문화제	2009년 5월23일 ~5월24일	헌공다례, 행다시연, 차관련 문화 행사 등
	2009 명랑대첩축제	2009년 10월 8일 ~10월11일	명랑해전 재현, 강강술래 등
	제7회 대흥사 단풍축제	2009년 11월 6일 ~11월 8일	오색단풍 건강걷기대회, 남도전통 품바공연, 관광객참여이벤트 등
	제14회 땅끝 해님이·해맞이축제	2009년 12월31일 ~2010년1월1일	해님이, 해맞이 행사
영암 (3)	제3회 영암호 해맞이 축제	2009년 1월 1일	소원지쓰기, 신년복떡나눠먹기 등
	제13회 영암 왕인문화 축제	2009년 4월 4일 ~4월 7일	일본 전통문화체험마당, 왕인예술단 국악콘서트 등
	제3회 영암왕인국화축제	2009년 10월29일 ~11월20일	왕인박사일본가요, 구림도기복원과 미래비전, 초청가수 공연 등

무안 (2)	제13회 대한민국연산업 축제	2009년 8월 6일 ~8월 9일	연 꽃길탐사, 연 생태체험 등
	제7회 초의선사탄생 문화제	2009년 4월25일 ~4월26일	판소리 민요등 국악 시연, 외국인 전통 행다법 시연, 무아차회 시연·시음 등
함평 (2)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2009년 4월24일 ~5월10일	나비생태체험, 표본전시 등
	제3회 대한민국국향대전	2009년10월 ~2009년11월	국화 동호회작품 전시, 국화기획전시, 민속놀이체험 등
영광 (2)	제8회 영광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2009년 5월27일 ~5월30일	용왕제, 산신제, 민속놀이
	제2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	2009년 9월18일 ~9월20일	민속놀이, 상사화가요제,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장성 (2)	제11회 장성 홍길동축제	2009년 5월 2일 ~5월 5일	홍길동선발대회 등
	제14회 장성 백양단풍 축제	2009년 11월 초	전국단풍등산대회, 단풍 분재전, 책갈피 만들기 등
완도 (2)	제14회 완도장보고축제	2009년 5월 2일 ~5월 3일	바다사진 및 선박전시회 등
	제4회 해넘이·해맞이 물과 빛의 축제	2009년 12월31일 ~2010년 1월 1일	일출기원제, 희망 연 및 소망풍선 날리기, 일출감상 등
진도 (2)	제32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2009년 4월25일 ~4월27일	바닷길체험, 민속공연 등
	2009 진도 아리랑축제	2009년 10월31일 ~11월 3일	명량대첩기념세계평화제, 남도민요전국 명창대회, 고수대회 등
신안 (3)	제2회 신안 툼립축제	2009년 4월15일 ~4월28일	툼립꽃밭을 달려보기, 해변 달리기 체험, 대파를 무료 수확 체험 등
	제4회 신안 갯벌·소금 축제	2009년 8월 1일 ~8월 3일	갯벌마라톤, 갯벌꽃살, 갯벌피구 등
	제2회 신안 시금치 축제	2009년 12월 중	시금치캐기체험, 시금치요리 경연대회, 선왕산 등반 등

자료출처 : 각 시·군 홈페이지

<표 2> 전남 지역축제의 자원활용 특성

자원분류		축 제 명	총계(57)
자연 자원	강·바다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신안갯벌소금축제, 목포바다은빛갈치 축제, 목포선상해넘이·해맞이 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 여자만갯벌노을축제, 향일암일출제, 순천만갈대 축제, 영산강문화축제, 광양전어축제, 정남진물축제, 마량미항 축제, 땅끝해넘이·해맞이 제, 완도해넘이·해맞이축제, 영암군 해맞이축제	16
	산·꽃	유달산꽃축제, 영취산진달래축제, 광양매화문화축제, 담양대나무 축제, 구례산수유꽃축제, 섬진강변벚꽃축제, 피아골단풍제, 다향제, 제암철쭉제, 천관산억새제, 대흥사단풍축제, 왕인국화축제, 대한민국 연산업축제,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불갑산상사화축제, 백양단풍축제, 신안튠립축제	18
문화 자원	인 물	심청축제, 홍길동축제, 왕인문화축제, 장보고축제	4
	전 통 · 생 활 · 음 식	여수거북선대축제,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지리산남악제, 보성소리축제,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장흥보림문화제, 영랑문화제, 다산제, 청자문화제, 초의 문화제, 명랑대첩축제, 초의선사탄생문화제, 법성포단오제, 신안 시금치축제, 진도아리랑축제	17
	기 타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 녹동바다불꽃축제	2

- 시·군별로 보면 여수시가 6개로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목포, 구례, 장흥, 강진, 해남 등이 각각 4개씩 개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축제를 활용하고 있음.
- 그 외에 대부분 시·군의 경우도 1~2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축제가 지역의 주요 홍보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
- 축제를 자원별로 보면 크게 자연자원이 34개, 문화자원이 23개로 다양한 자원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연자원 가운데 산, 꽃, 식물 등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 바다 등 수변공간에서 펼쳐지는 축제도 16개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자원의 경우 전통문화, 음식 등의 소재가 17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축제의 소재가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요구됨.

## (2)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문화관광축제는 총 57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2009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도별)

시도	등급	대표 (8억원)	최우수 (3억원)	우수 (1.5억원)	유망 (0.7억원)	예비 (0.3억원)
서울(0)						
부산(3)					부산자갈치축제	광안리어방축제 해운대모래축제(신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3)						인천소래포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락-페스티벌(신규)
광주(2)					광주김치대축제	7080총장축제(신규)
대전(0)						
울산(2)					울주외고산옹기축제	울산쇠부리축제(신규)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천구석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강원(7)			춘천국제마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호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횡성한우축제(신규)

충북(2)			영동난계국악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남(8)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공주부여백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신규)
전북(4)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전남(6)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경북(6)	안동탈춤축제		문경찾사발축제	풍기인삼축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5)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 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3)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최남단방어축제
계(57)	2개	8개	9개	17개	21개

-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는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등 2개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축제는 총 8개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강진 청자문화제와 함평 나비축제 등 2개가 포함되었음.
- 우수축제의 경우 총 9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지역의 경우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선정되었으며, 유망축제의 경우 총 17개 축제 가운데 전남의 경우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선정되었음.
- 그리고 예비축제로서 21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남의 경우 담양 대나무축제, 영암 왕인문화제가 포함되었음.
- 이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7개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전남은 6개로 경북과 함께 3번째로 많은 축제가 선정되었음.

- 한편, 2001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국 30대 축제(1차)와 전국 10대 축제(2차)를 선정했는데 전남은 30대 축제 가운데 4개의 축제가, 또 10대 축제에는 3개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었음.

<표 4> 지원육성을 위한 2001년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축제

전국 대표 축제 선정		
전국 30대 축제(제1차 선정)		전국 10대 축제(제2차 선정)
상반기 14개	대관령눈꽃축제, 한라산눈꽃축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청도소싸움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영암왕인문화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남원춘향제, 대구약령시축제, 진도영등축제, 하동야생차축제, 춘천국제마임, 무주반딧불 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청도소싸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남원춘향제 한산모시문화제 진도영등축제
하반기 16개	보령머드축제, 고성공룡나라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무안연꽃축제, 금산인삼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통영나전칠기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풍기인삼축제, 양양송이축제, 하성문화제, 부산자갈치축제, 광주김치대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익산보석문화축제	강진청자문화제, 금산인삼축제, 부산자갈치축제 광주김치대축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주 : 당시 1차 선정된 30대 축제에는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하고 2차 선정된 10대 축제에는 7천만원을 지원했음.

- 2001년 이후 강진 청자문화제, 영암 왕인문화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고, 함평 나비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새로운 축제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당시(2001년)와 비교하면 2009년의 경우 전남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 수는 4개에서 6개로 증가했지만 총 선정수가 30개에서 57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 이는 타 지역의 경우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기존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더 많은 축제가 전국대표축제로 선정되고 있으나 전남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3) 과제 및 시사점**

- 현재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의 인물, 자연자원, 역사적 사실 등 다양한 테마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총체적으로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축제가 적지 않음.
-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역할도 부족한 실정임.
- 축제의 목표설정이 불분명하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관광객유치를 하고자 하는지 불확실하고, 이벤트 자체가 특징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려는 백화점식 이벤트를 개최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전남의 축제는 10여년 전에는 다양한 테마와 맛있는 음식, 주변의 빼어난 경관 등의 요인으로 많은 기대를 갖았으나, 전국 규모의 축제로 성장한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축제가 차별성, 독자성에 대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지역민에게 여가·레크레이션을 위한 기회 제공을 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 이미지 향상 및 관광, 지역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이벤트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 여전히 계절편중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자연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비중이 높으며, 인문축제, 역사문화축제 등의 축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음.



-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축제발전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 발굴·육성이 요구되고 있음.

## 2. 축제 행사장의 현황 및 과제

### 사례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1) 축제행사장의 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 전체적으로 축제현장이 산만하고 지나치게 도시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아름답고 신비스런 축제테마에 걸맞은 해안경관 연출이 부족함.
- 축제행사장의 공간별 특성에 따른 경관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바닷길 갈라지는 장면을 제외하고 바다와 관련된 공간구성이나 이벤트가 많지 않아 축제의 주제가 주는 느낌이 반감됨.
- 축제의 주요무대로 가는 동선은 외길동선이라서 어려움은 없지만 축제의 주무대 외의 장소에서 감상할만한 경관이나 이용시설이 빈약함.
- 주변에 해양생태관 등이 있으나 축제기간과 평소의 전시물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음.
- 건물이나 간이시설물, 표지판 등의 디자인은 일체성이 결여되고 상업용 간이 포장마차의 메뉴광고도 과도하게 게재됨.

## 2) 시설물 경관디자인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 색채 등 디자인의 일체성이 결여됨.
- 진입부 아이치(홍보 게시물)가 너무 진부한 디자인으로 상징성을 주지 못함.
- 행사장 진입부에 안내 정보시설이 배치되지 않아 관문성이 결여됨.
- 진입부의 화장실 형태, 색채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함.
- 종합안내판 규모가 너무 커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보 내용도 과도하게 많음.
- 주차장은 잔디블럭으로 생태성을 강화한 측면은 양호하나 그늘이 없으므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식재가 요구됨.
- 주차장 부근의 도로포장 색채가 너무 강렬하여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
- 간이 포장마차 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얀색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일부 다른 색채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음식메뉴광고가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음.
- 뽕할머니 동상과 주변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해변도로, 해안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진출입이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동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관리 안내시설이 박스형으로 설치되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해야할 축제 분위기와는 맞지 않음.
- 주무대 관람석 사면의 콘크리트 옹벽과 인조목 계단식 관람석으로 인해 품격이 낮아 보일 뿐 아니라 삭막한 느낌까지 제공함.
- 가로등의 경우 지역로고 삽입이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이루어 지고 있어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맞지 않음.

### 3) 관련사진



진입부에 설치된 아치형태의 관문 조형물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화장실



위치나 규모(Scale) 등이 부적절한 안내판



지역축제의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각설이식 노상판매



행사장안의 포장마차와 간판 등이 어지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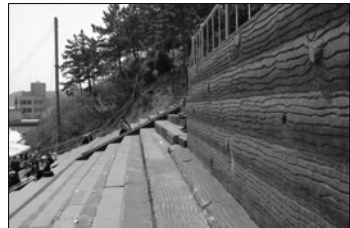
축제의 상징물이 해안경관과 조화 되지 못하고 감상의 대상이 되지 못함



축제 및 관광정보안내소가 친근감을 주지 못함



철제가드레일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살리지 못하고 단조롭게 함



과도하게 사면에 인조목을 이용하여 관람석을 마련한 행사장

### 4) 시사점

#### (1) 축제 행사장

- 축제 행사장에 관한 경관 디자인을 추진함으로써 건축물, 공간, 시설별로 축제 주제와 분위기에 걸맞은 행사장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함.

- 기존의 건물 및 시설물을 축제 분위기에 맞도록 경관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바다와 해안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마련 및 경관사업 추진
- 대리석, 콘크리트 등 인공화를 최소화하고 목재 등 자연친화형 소재를 적극 활용

## (2) 축제주변 시설물

- 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관한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진입부 아아치(홍보 게시물) 대신에 진도 혹은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관문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행사장 진입부에 안내 정보시설을 배치하여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
- 진입부 화장실의 경우 위치, 형태, 색채 등을 개선하여 정보안내센터와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종합안내판의 경우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사람의 키나 시선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려한 디자인이 요구됨.
- 주차장은 구간별로 나누어 주변에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요소요소에 화훼류를 심는 등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함.
- 주차장 부근의 도로포장은 강렬한 채색보다는 자연색에 가깝도록 하며 가급적 무채색을 사용하도록 함.
- 상업용 간이 포장마차 시설의 경우 구간별로 유사색 사용을 유도하고 지나치게 많은 음식메뉴광고를 자제하도록 함.
- 뽕할머니 동상과 주변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해안도로, 해안풍경 등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자연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경관디자인 개선이 필요

하고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필요에 따라 바다쪽으로 목재데크를 활용한 친수공간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소형 안내시설이라도 박스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무대의 관람석이 사면에 콘크리트 옹벽과 계단식 인조목으로 되어 있어 쾌적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재 마감재를 사용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로등의 경우 지역로고 삽입이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디자인은 자제하고 공공디자인의 취지에 맞게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2. 신안 임자 툼립축제

### 1) 축제행사장 경관 디자인

#### (1) 현황 및 문제점

- 축제행사장 진입부의 경우 노상에서 셔틀버스가 정차하고 툼립경작지를 경유하여 대광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짜임새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관람동선이 지루함.
- 진입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에서 일시에 내리므로써 혼잡하나, 공간이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부족하며, 도중에 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부족함.
- 전체부지를 툼립만으로 배치하고 있어 완성도가 미흡하고 단순히 색채를 구분하여 경작지에 경작하는 수준이어서 섬세한 볼거리가 부족함.
- 경작지가 평지여서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photo zone)이 별로 없고, 툼립재배지 이량의 노출면이 너무 많아서 툼립이 매스(MASS)로 인식되지 못함.

## 2) 시설물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1) 현황 및 문제점

- 섬은 배를 타고 이동하므로 행사장의 접근은 이미 선착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선착장의 매표소, 휴게시설, 상업시설 등이 삭막하여 오히려 축제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함.
- 조망대, 풍차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하고 있지만, 툽립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
- 동선자체가 지루하고 보도(통행로)가 불편하여 쾌적한 관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일부 창고나 담장에 원색적인 툽립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페인팅벽화는 격조있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안내판, 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위치나 형태, 디자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산만한 느낌을 주며, 일부 정자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수량이 부족하고 명확한 기능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화장실, 일부 조형물들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디자인이 조잡하고, 일부 공간에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광해수욕장 주변의 모텔, 식당 등의 건물이 해안풍경, 툽립축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있고, 신안툽립공원 앞의 표지판도 풍차 형태의 건물과 조화되지 못하며, 기존의 관리사무소 파란지붕색채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2) 관련사진



방문객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선착장의 매표소가 조형미나 쾌적성이 결여됨



가로에 화분이 배치되어 있으나 식물이 제대로 식재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미흡



축제행사장의 동선체계가 미흡하며 보행의 쾌적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



따가운 햇살을 피하여 휴식할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



행사장내의 조형물, 시설물이 감상할만한 수준의 디자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식재디자인 수립이 요구됨



주변 건축물과 행사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디자인이 요구됨

## 3) 시사점

### (1) 축제 행사장

- 선착장은 섬을 방문하는 첫 관문으로서 섬의 이미지, 축제의 기대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착장의 매표소, 휴게시설, 상업시설, 조형물 등에 대한 경관개선이 요구됨.

- 일부 조망대, 풍차 등은 훌륭한 시설이지만, 툭립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휴식, 상업 기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행로가 쾌적하도록 바닥소재의 개선과 주변 편익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창고나 담장의 툭립 벽화는 자제하는 한편 담장녹화 등 실제적인 생태경관연출수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내판, 표지판 등의 시설물은 위치나 형태, 디자인을 일체화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정자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규모나 디자인을 특성화하여 경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 화장실, 일부 조형물 등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디자인이 조잡한 것을 개선하여 그 자체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하고, 일부공간에 조성된 작은 연못에 습지식물, 관찰데크 등을 적극 도입하여 휴게 및 감상공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광해수욕장 주변의 모텔, 식당 등의 건축물들이 해안풍경, 툭립축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건물 리모델링, 혹은 지구단위 계획, 특정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반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함.
- 신안툭립공원 앞의 표지판도 풍차 형태의 건물과 조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관리사무소의 파란색지붕도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므로 색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2) 행사장 주변 시설물

- 진입부의 경우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리므로 광장 형식의 공간을 마련하여 담소, 휴식, 정보입수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배치하고, 자가운전자를 위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할 것임.
- 동선에 따라 요소요소에 쉼터, 정자, 포토존, 조망공간 등 휴식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배치가 필요하고, 전체 부지를 툭립만으로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화훼류, 잔디밭 등을 통해 보완하고 생태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색채를 구분하여 경작지에 경작하는 수준을 벗어나 전체 식재 디자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형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경작지가 평지여서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마운딩을 통해 자연스런 곡선을 유도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도 있음. 또한 툭립재배지 이랑의 노출면이 너무 많아서 툭립이 매스(MASS)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랑을 줄이거나 밀식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Ⅲ. 지역축제에 대한 의식조사 및 결과

### 1. 2009년도 지역축제에 대한 축제 참가자 의식

#### 1) 축제참가자 의식조사

-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상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전남의 57개 지역축제가운데 지역특성 및 축제주제 등을 고려하여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4.25~4.27), 함평나비대축제(4.24~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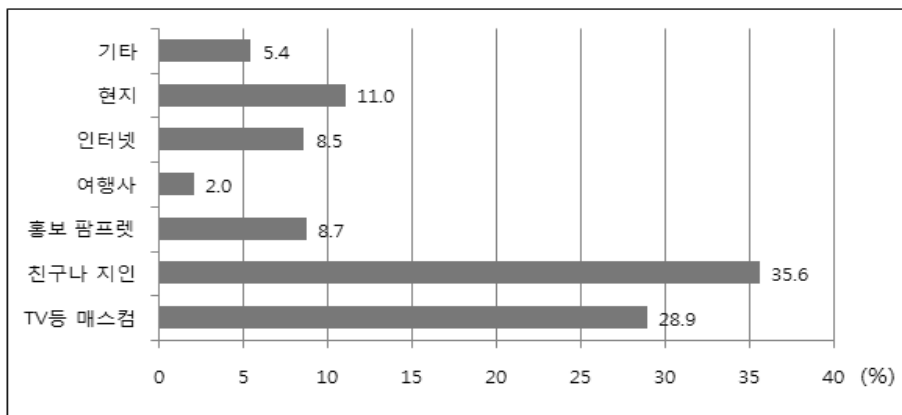
장성홍길동축제(5.2~5.5), 담양대나무축제(5.2~5.7) 등을 선정하여 축제 개최기간동안 각 축제현장에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각 320부씩 총 1,280부를 무작위로 설문조사하였음.

- 이 수집된 설문내용을 5월 26일부터 6월 5일에 걸쳐 분석한 결과 유효 설문지 총 1,217부를 SPSS, EXCEL Program 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pm 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축제에 관한 의식변화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9년의 축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sup>1)</sup>와 비교 검토하였음.

## 2) 의식조사 결과분석

### □ 축제에 대한 정보 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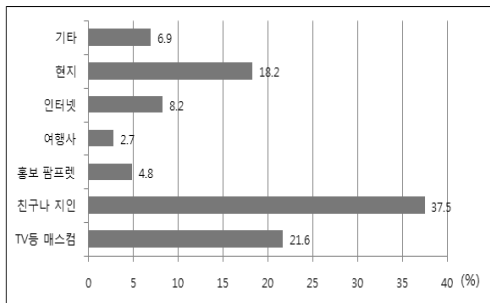
- 전남의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는 질문에 “친구나 지인(35.6%)”, “TV 등 매스컴(28.9%)” 등의 순으로 응답함. 이는 축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소문과 주요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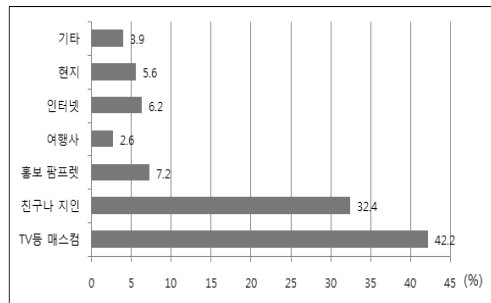
1)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송태갑), 1999. 8, 리전인포, 제48호, 전남발전연구원

- 축제의 정보수집 경로를 각 축제별로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는 “친구나 지인”이 37.5%로 가장 많았고, “TV 등 매스컴(21.6%)”, “현지(18.2%)”, “인터넷(8.2%)” 순으로 응답함.
- 함평나비축제는 “TV 등 매스컴”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지인(32.4%)”, “홍보팜프렛(7.2%)”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친구나 지인”, “TV나 매스컴”이 각각 27.4% 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현지(16.0%)” 라고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는 “친구나 지인”이 45.5%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얻는 정보가 타 지역축제보다 월등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TV 등 매스컴 (23.9%)”, “홍보팜프렛(14.5%)” 순으로 응답함.
-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입수는 대체적으로 “친구나 지인” “TV 등 매스컴”, 그리고 “홍보팜프렛”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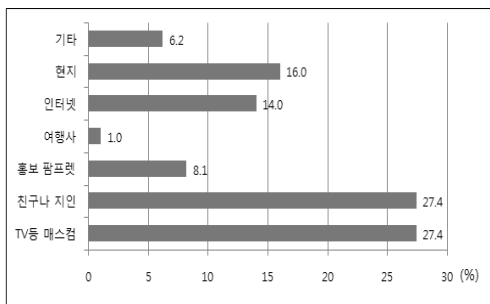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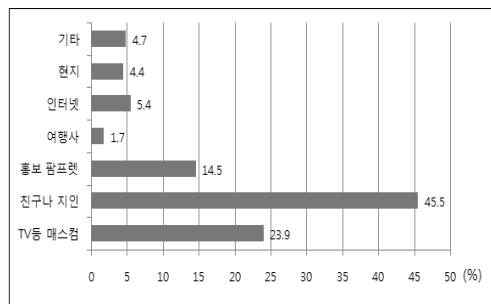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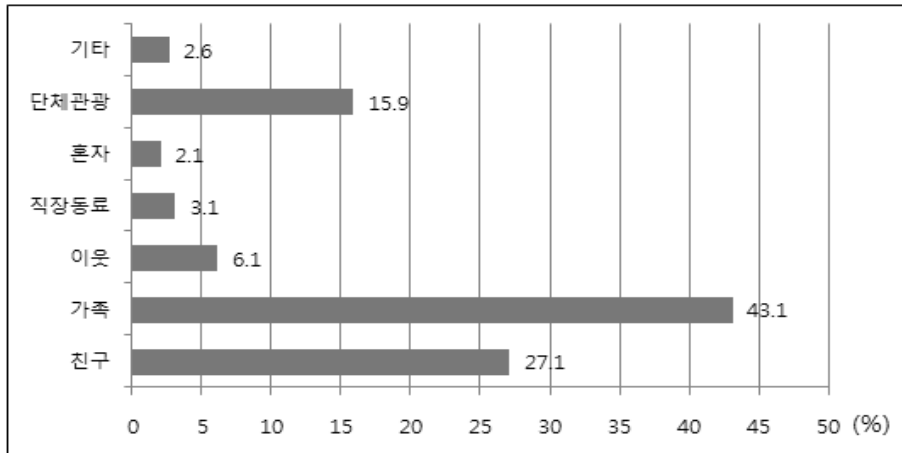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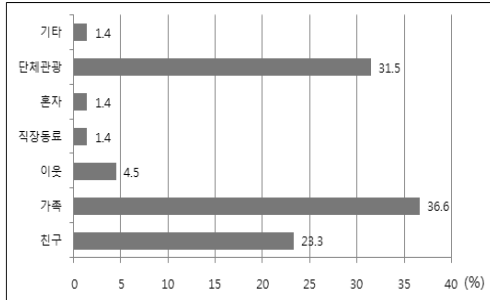
□ 축제참가 동반자

- 전남의 지역축제 동반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4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7.1%)”, “단체관광(15.9%)”, “이웃(6.1%)”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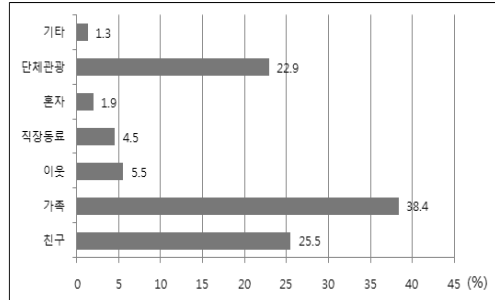


- 각 축제별 동반형태를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의 경우 “가족”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체관광(31.5%)”, “친구(23.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역시 “가족”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25.5%)”, “단체관광(22.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 대부분의 동반자가 “가족(46.9%)”과 “친구(35.4%)”로서 다른 축제에 비해 단체관광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 “가족”이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24.0%)”, “이웃(11.3%)”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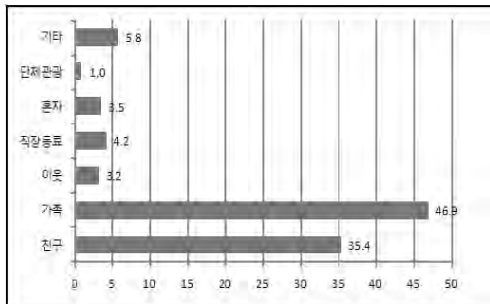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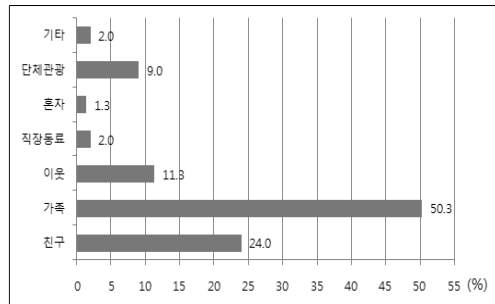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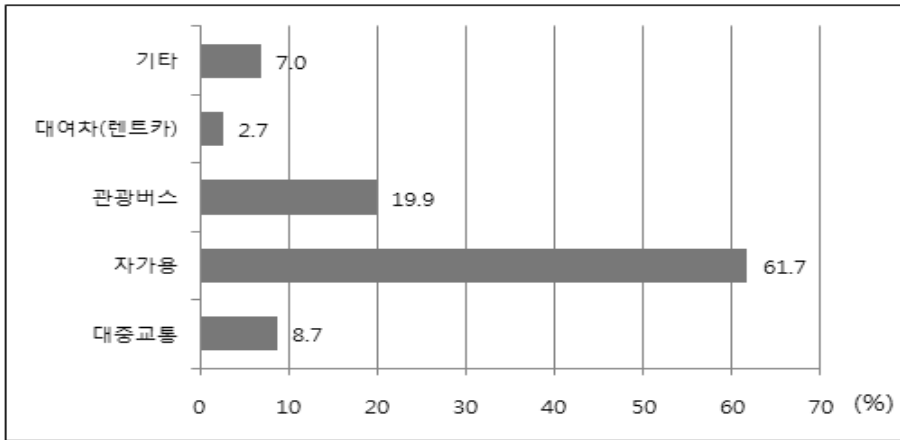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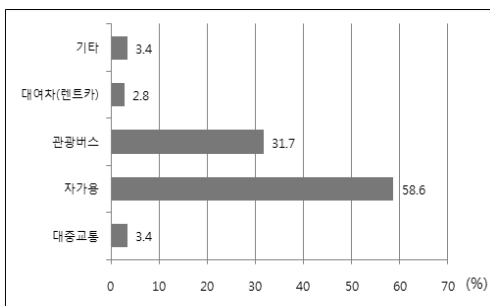
□ 축제참가 교통편

- 전남의 지역축제 참가 시 이용한 교통편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6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광버스(19.9%)”, “대중교통(8.7%)” 등으로 나타남.
- 이는 진도영등축제,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관광성향이 강한 점 때문에 “관광버스” 이용 비율이 높았고, 담양 대나무축제와 장성 홍길동축제는 지역주민과 인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참가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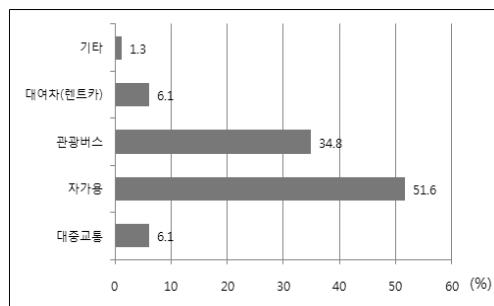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의 경우 “자가용”이 58.6%, “관광버스”가 31.7%이며, 3.4%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함평나비축제 역시 “자가용”이 51.6%, “관광버스”가 34.8%이며, 6.1%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담양 대나무축제의 경우 “자가용”이 67.8%, “대중교통” 19.9%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한 비율이 다른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관광버스”는 1.6%로 단체관광의 비중이 낮음을 보여줌.
- 장성 홍길동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가용(68.7%)”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관광버스(9.8%)”, “대중교통(4.7%)”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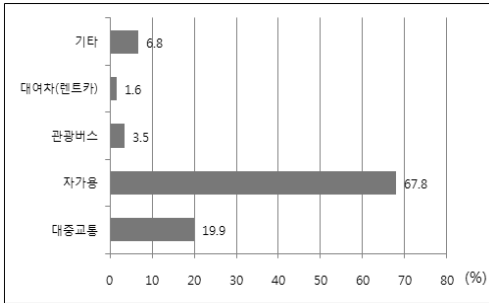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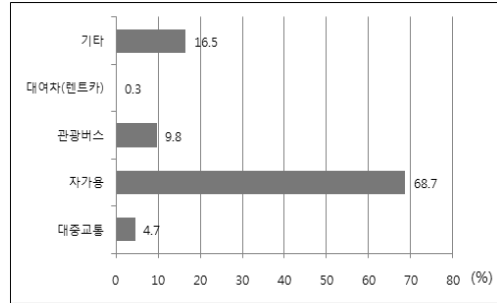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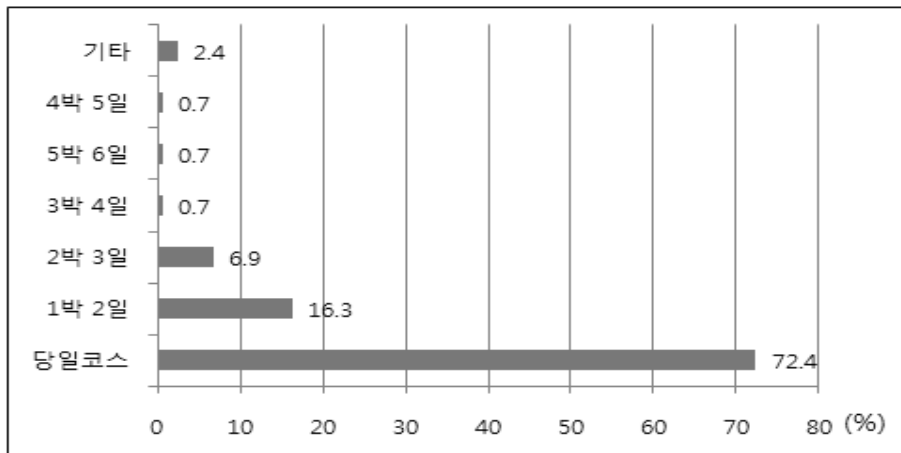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 체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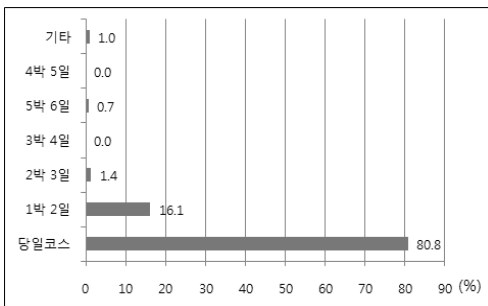
- 지역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축제기간 동안의 체류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당일코스(72.4%)”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1박2일(16.3%)”, “2박3일(6.9%)”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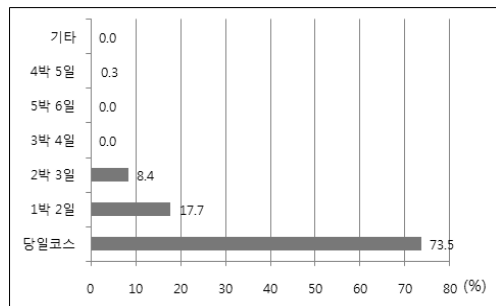
- 지역축제 기간 동안의 체류일정을 각 축제별로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 참가자 중 80.8%가 “당일코스”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1%가 “1박2일”이라고 응답했음.

- 함평나비축제 참가자 역시 “당일코스”가 7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7%가 “1박2일”이라고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 참가자도 “당일코스”가 48.9%로 가장 많았고, 24.3%가 “1박2일”이라고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당일코스(87.2%)”라고 응답했고, “1박2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전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대부분 당일코스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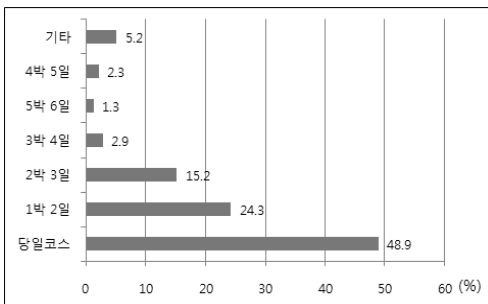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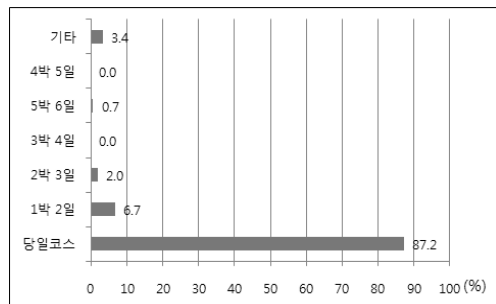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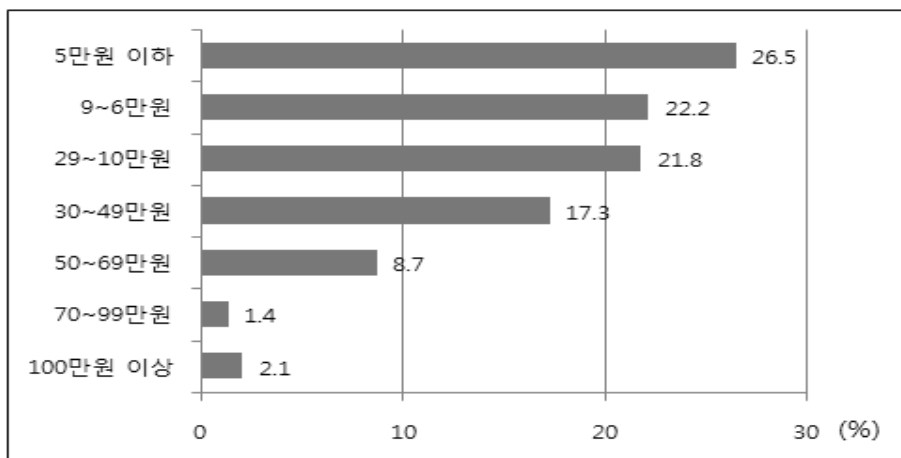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 □ 여행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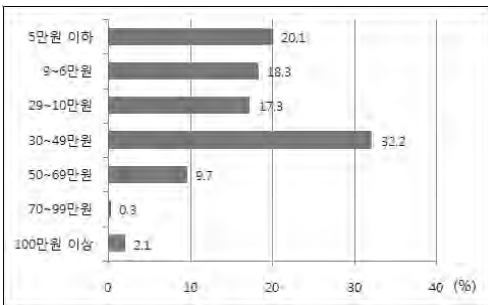
- 전남의 지역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비용”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5만원 이하(26.6%)”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6~9만원(22.2%)”, “10~29만원(21.8%)”, “30~49만원(17.3%)”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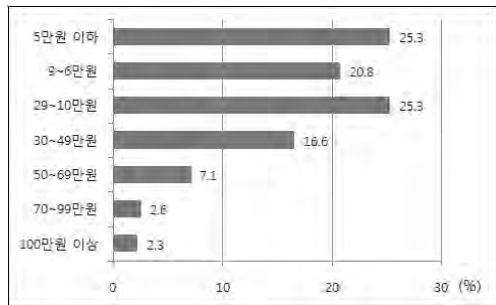
- 여행비용을 각 축제별로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30~49만원”이 32.1%로 평균 17.3%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20.3%가 “5만원 이하”라고 응답함.
-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5만원 이하”, “10~29만원”이 각각 25.3%로 많았고, 다음으로 16.6%가 “30~49만원”이라고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 참가자들은 “5만원 이하”가 30.9%로 가장 많았고, “10~29만원(27.0%)”, “6~9만원(16.9%)”의 순으로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 “6~9만원(32.8%)”이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 (29.4%)”, “10~29만원(17.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이로써 축제참가자의 여행비용은 대부분 “9만원 이하”로 일부 숙박객을 제외하고는 실제 교통비나 자동차 연료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축제 현장에서의 소비는 그다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기념상품, 향토음식 등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더불어 관광지 연계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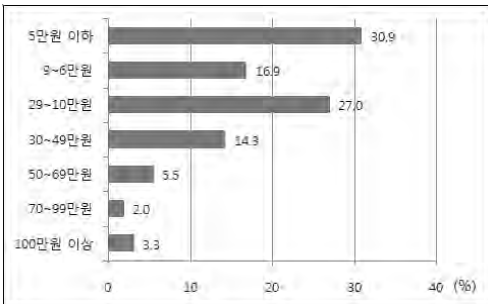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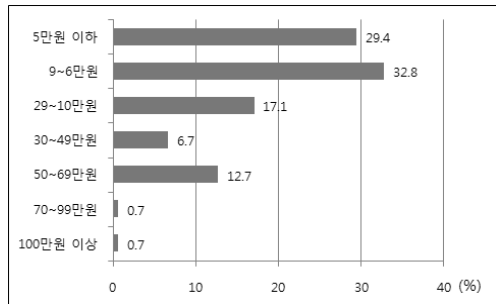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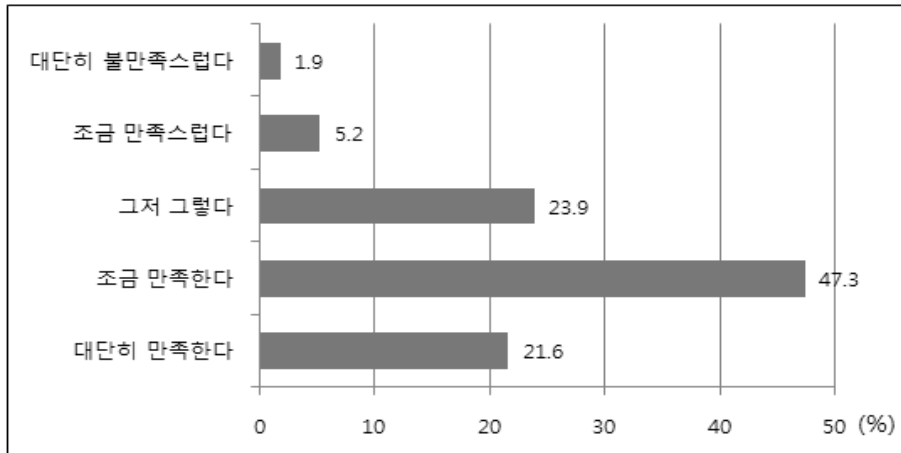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 축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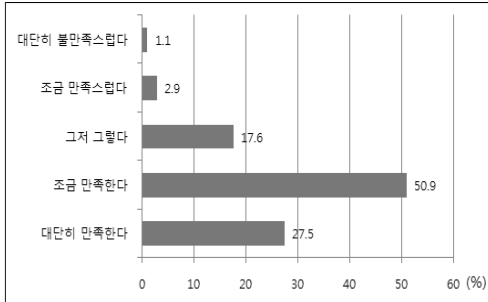
-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느끼는 지역축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21.6%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47.3%가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8.9%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23.9%는 “그저그렇다”

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음. “조금 불만족스럽다(5.2%)”, “대단히 불만족스럽다(1.9%)”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은 7.1%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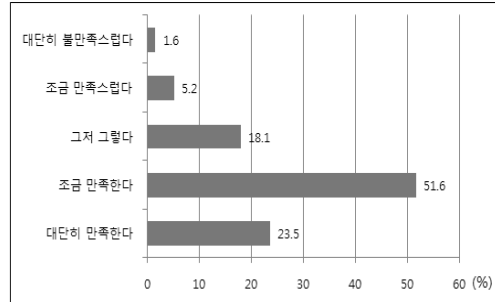


- 각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의 경우 응답자의 27.5%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50.9%는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7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함평나비축제 역시 응답자의 23.5%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51.6%가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7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는 응답자의 18.5%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43.5%가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6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 응답자의 17.5%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43.4%가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6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전남의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지속적인 개선여부에 따라 지역축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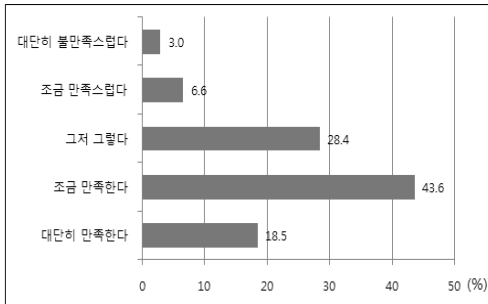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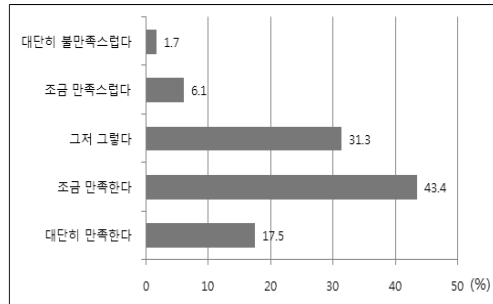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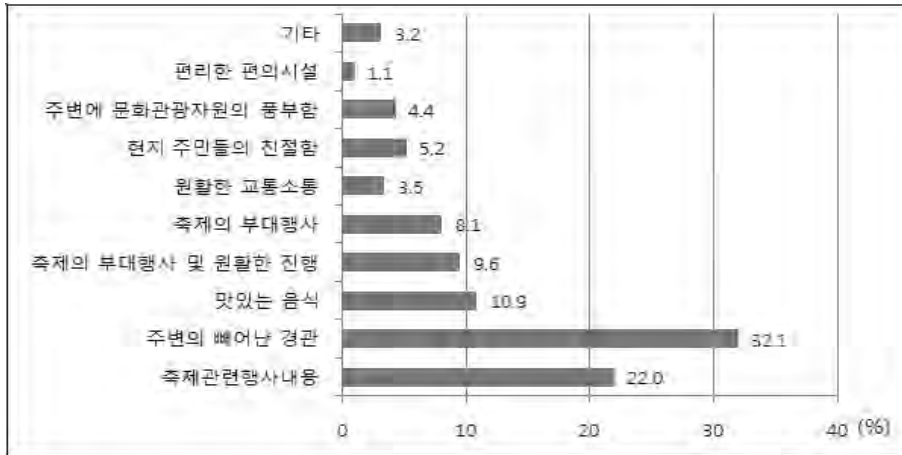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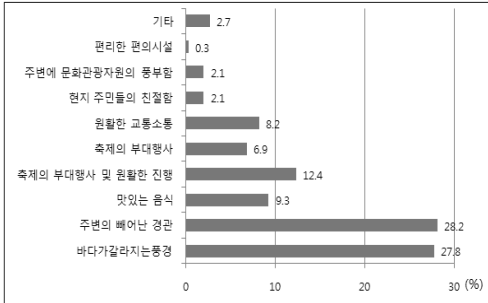
□ 만족스러운 점

- 전남의 지역축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주요행사내용(22.0%)”, “맛있는 음식(10.9%)”,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9.6%)” 등의 순으로 응답함. 결과적으로 축제 행사장 및 주변경관정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향토음식개발, 특색있는 행사내용이나 진행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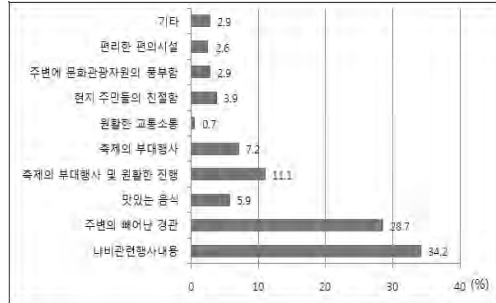


- 각 지역축제별 만족스러운 점을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에서는 “주변의 빼어난 경관(28.2%)”,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2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제의 부대행사(12.4%)”, “맛있는 음식(9.3%)”, “원활한 교통소통(8.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함평나비축제에서는 “나비관련행사(34.2%)”, “주변의 빼어난 경관(28.7%)”, “축제의 부대행사(1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이 53.0%로 가장 많았고, “맛있는 음식(11.7%)”, “전통문화체험(11.3%)”, “대나무관련 행사(6.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는 “홍길동 관련행사(19.0%)”, “주변의 빼어난 경관(17.9%)”, “맛있는 음식(17.2%)”, “축제의 부대행사(12.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결과적으로 축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점으로는 담양 대나무축제와 진도 영등축제의 경우 “주제와 관련된 행사내용”보다 “주변의 빼어난 경관”이며, 함평 나비축제와 장성 홍길동축제의 경우 역시 “주제와 관련된 행사내용”과 “주변의 빼어난 경관”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여 축제와 관련된 행사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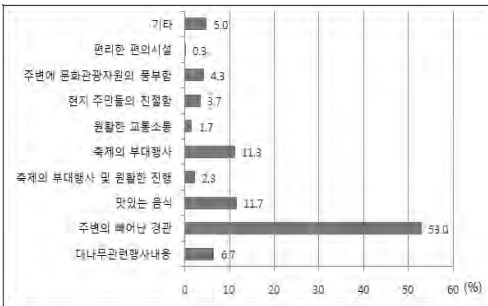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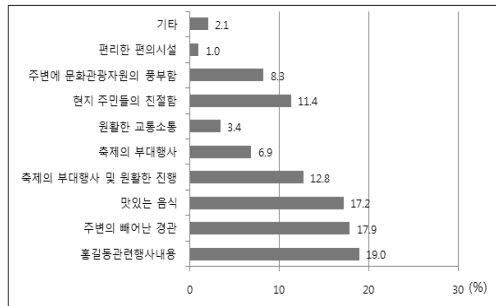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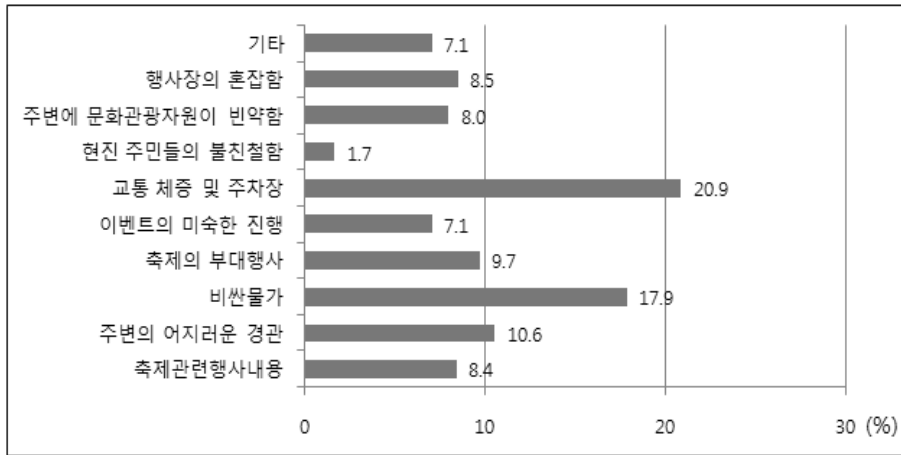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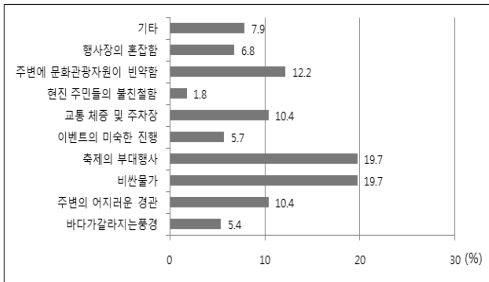
□ 불만족스러운 점

- 전남의 지역축제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통체증 및 주차장(20.9%)”을 꼽았고, 다음으로 “비싼 물가(17.9%)”,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10.6%)”, “축제의 부대행사(9.7%)” 등의 순으로 응답함. 이는 축제의 주요 행사보다 행사장 환경이나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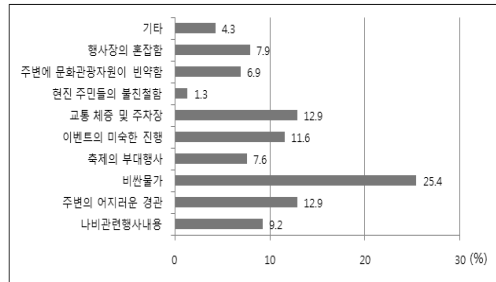


- 각 축제별 불만족스러운 점을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의 경우 “축제의 부대행사”와 “비싼물가”가 19.7%로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의 관광자원 빈약(12.2%)”,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10.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비싼물가(25.4%)”,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12.9%)”, “교통체증 및 주차장(12.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통체증 및 주차장(37.2%)” 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비싼물가(14.8%)”, “축제관련행사내용(7.7%)” 의 순으로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 “교통체증 및 주차장(22.6%)”이 가장 많았고,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11.6%)”, “축제관련행사내용(11.3%)” 순으로 응답함.
- 이를 종합해 볼 때 축제의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행사장주변의 어지러운 경관”, “비싼물가”, “교통체증”, “이벤트의 미숙한 진행” 등을 들고 있어 축제의 주제보다는 운영과 서비스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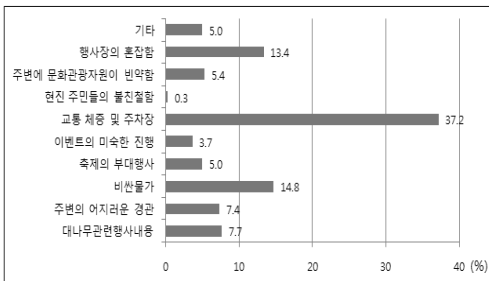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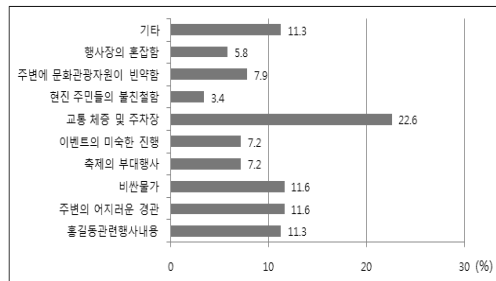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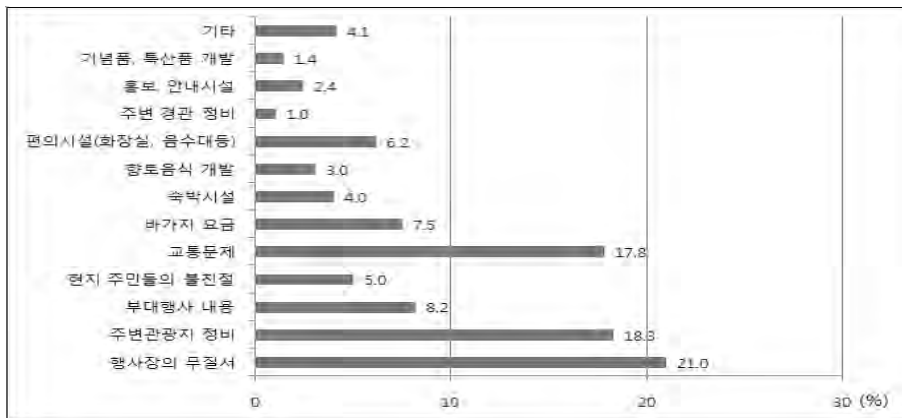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 축제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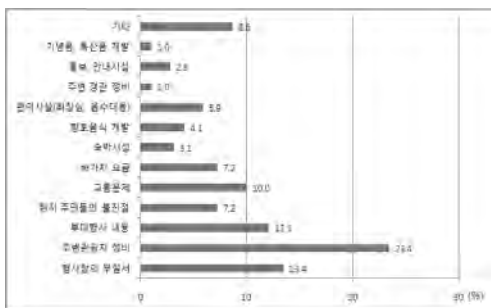
- 전남의 지역축제가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사장의 무질서(21.0%)”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주변관광지 정비(18.3%)”, “교통문제(17.8%)”, “부대행사 내용(8.2%)” 순으로 나타남.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변관광지,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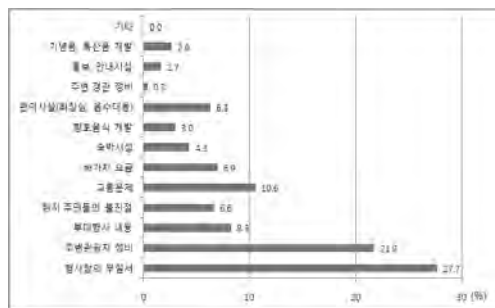


- 개선사항을 각 축제별로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의 경우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16.4%)”, “바가지요금(15.3%)”, “홍보·안내시설(14.1%)”, “부대행사내용(10.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행사장의 무질서”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통문제”(18.4%),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14.5%)”, “주변관광지 정비(9.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 “교통문제”가 26.4%로 가장 많았고, “행사장의 무질서(22.1%)”, “주변관광지정비(13.0%)”,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8.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장성홍길동축제의 경우는 “교통문제”가 24.2%로 가장 많았고, “행사장의 무질서(20.5%)”, “주변관광지정비(15.0%)”, “바가지요금(9.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의 무질서”, “교통문제”,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주변관광지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지자체의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치를 수 없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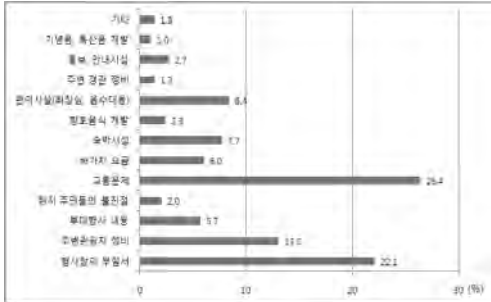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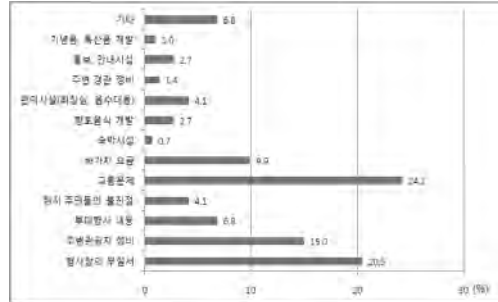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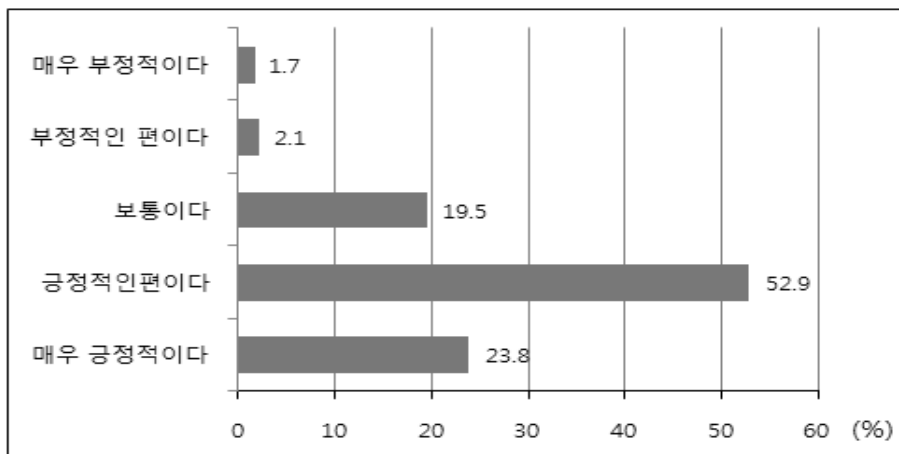


• 장성 홍길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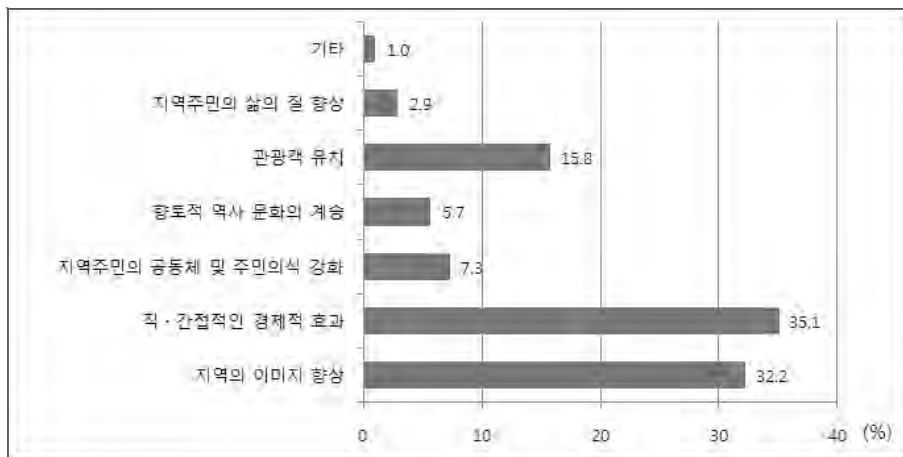
□ 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2009년 지역축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남의 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편이다”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긍정적이다(23.8%)”, “보통이다(19.5%)”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편이다(2.1%)”, “매우 부정적이다(1.7%)”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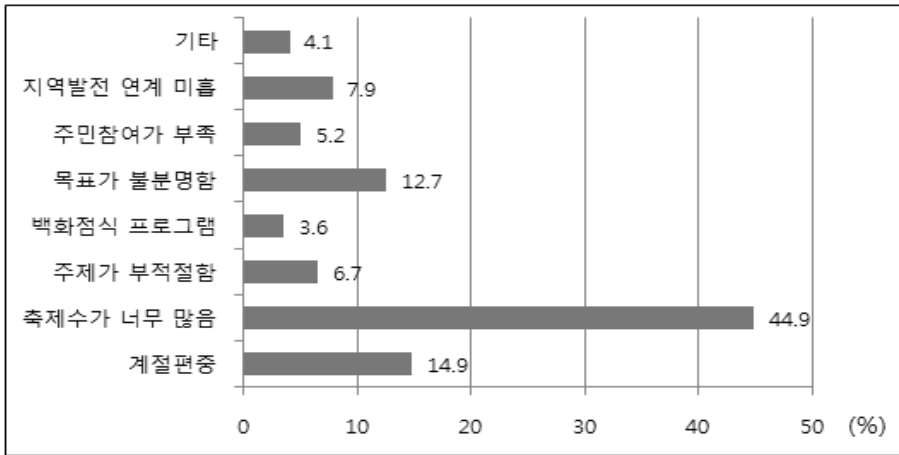
### □ 축제의 지역발전 효과

- 2009년 지역축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35.1%로 가장 많았고, “지역 이미지 향상(32.2%)”, “관광객 유치(15.8%)”,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주민의식 강화(7.3%)”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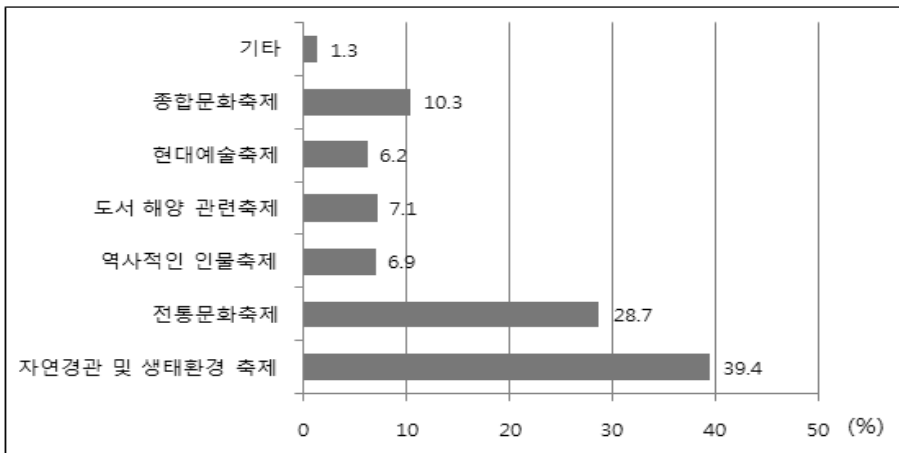
### □ 전남축제의 문제점

- 2009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축제수가 너무 많음(44.9%)”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계절편중(14.9%)”, “목표가 불분명함(12.7%)”, “지역발전 연계 미흡(7.9%)”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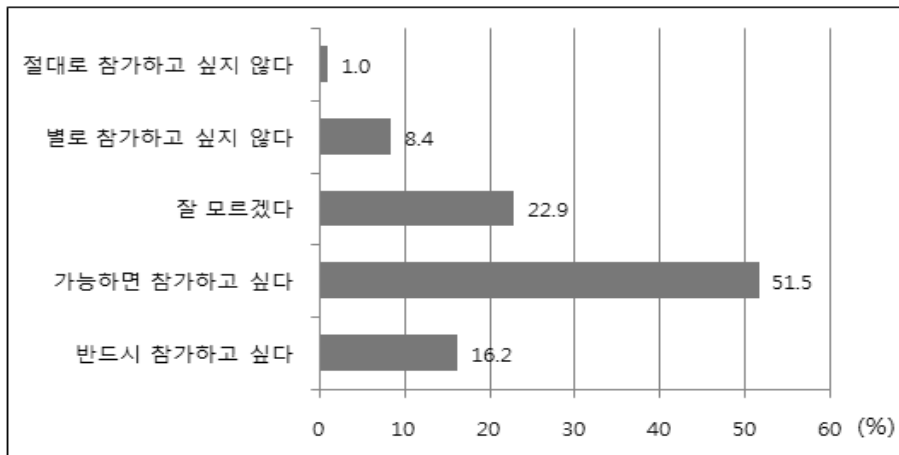
#### □ 전남의 대표축제 육성

- 전남의 대표축제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연 경관 및 생태환경 축제(39.4%)”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전통문화축제(28.7%)”, “종합문화축제(10.3%)”, “도서·해양문화축제(7.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차기축제의 참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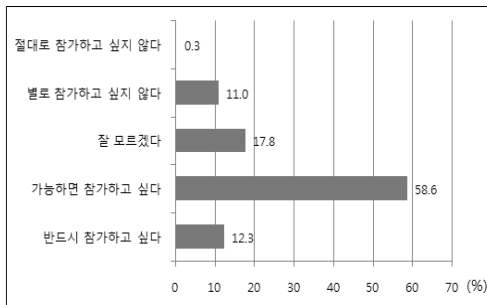
- 차기축제의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51.3%)”,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13.4%)”로 전체 응답자의 6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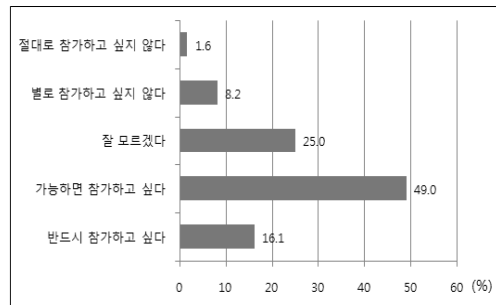
- 차기 축제의 참가여부에 대해 축제별로 살펴보면, 진도영등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58.6%)”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17.8%)”,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12.3%)”고 각각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70.9%, 유보적인 응답이 17.8%로서 차기축제 참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 (49.0%)”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25.0%)”,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16.1%)”라고 각각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65.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 (46.6%)”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30.2%)”,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9.3%)”의 순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응답(55.6%)이 다소 높고 유보적인 응답(30.2%)도 주목 할 만함.
- 장성 홍길동축제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인 51.5%가 “가능하면 참가하고 싶다”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22.9%)”,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16.2%)”로 응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67.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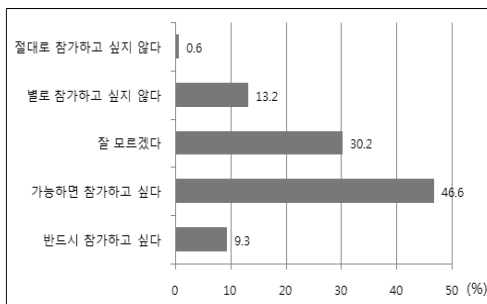
• 진도 영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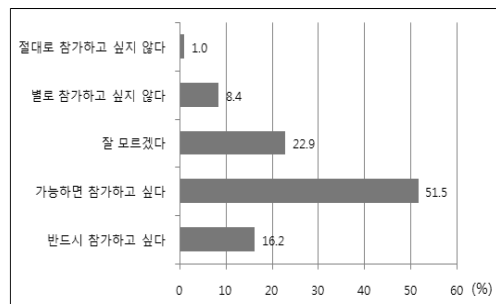
• 함평 나비축제



• 담양 대나무축제



• 장성 홍길동축제



### 3) 2009 지역축제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종합

- 축제에 대한 정보입수는 주로 “친구나 지인(35.6%)”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 동반자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43.1%가 “가족”이라고 응답함.
- 축제 참가 교통편은 주로 “자가용(61.7%)”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일정은 “당일코스(72.4%)”가 대부분이며, 여행비용은 “5만원 이하(26.6%)”가 가장 많음.
-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68.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7.1%에 그치고 있음. 또한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이라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교통체증 및 주차장(20.9%)”이라고 응답함.
- 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76.7%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3.8%에 불과함. 또한 축제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35.0%)”라고 응답함.
- 전남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축제수가 너무 많음(44.9%)”이라고 응답했고,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축제(39.4%)”라고 응답함.
- 차기 축제의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참가의사가 있다(64.7%)”고 응답한 반면, 불참가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21.1%에 그치고 있어 차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지역축제에 관한 의식변화(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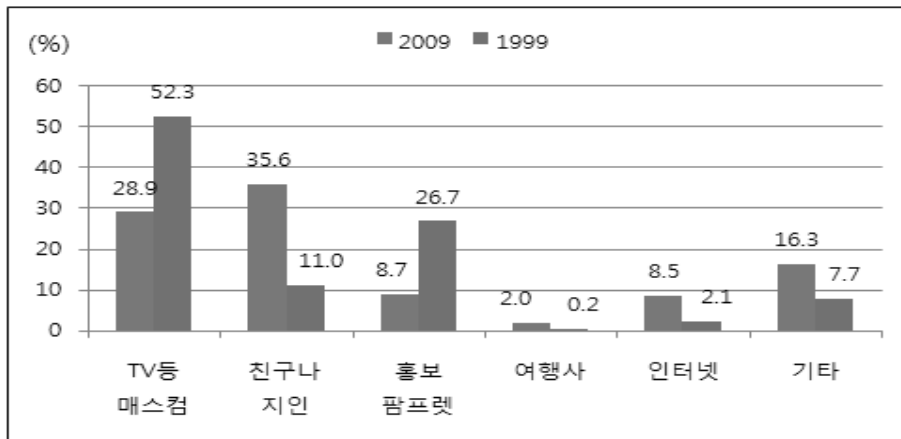
### 1) 축제에 관한 의식조사 비교검토

축제에 관한 의식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원 연구보고서(1999년, 리전인포)의 1999년 의식 조사결과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함.

## 2) 축제에 관한 의식변화 경향

### □ 정보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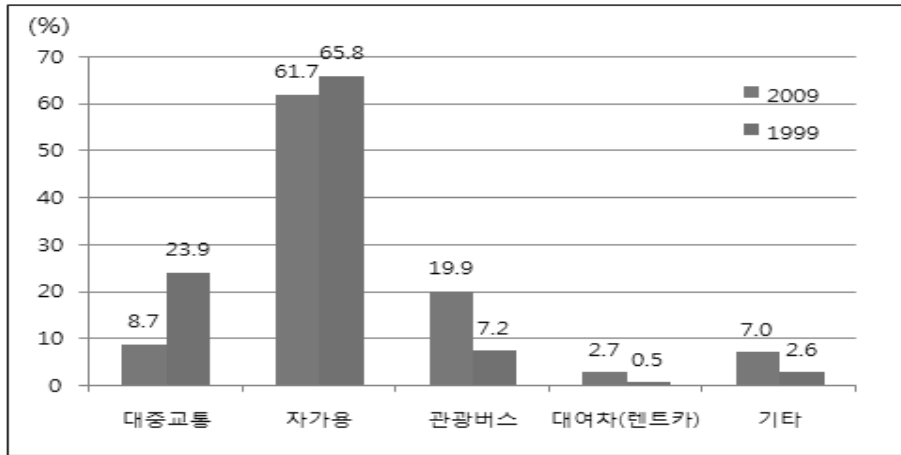
- 전남의 지역 축제의 정보수집 경로에 대해 1999년의 경우 “TV 등 매스컴(52.3%)”, “홍보 팸프렛(2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2009년의 경우 “친구나 지인(35.6%)”, “TV 등 매스컴(28.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이는 “TV 등 매스컴”, “홍보 팸프렛” 등을 통한 단순한 정보를 갖고 축제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지만, 2009년의 경우는 “친구나 지인”,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축제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한 정보 의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 교통수단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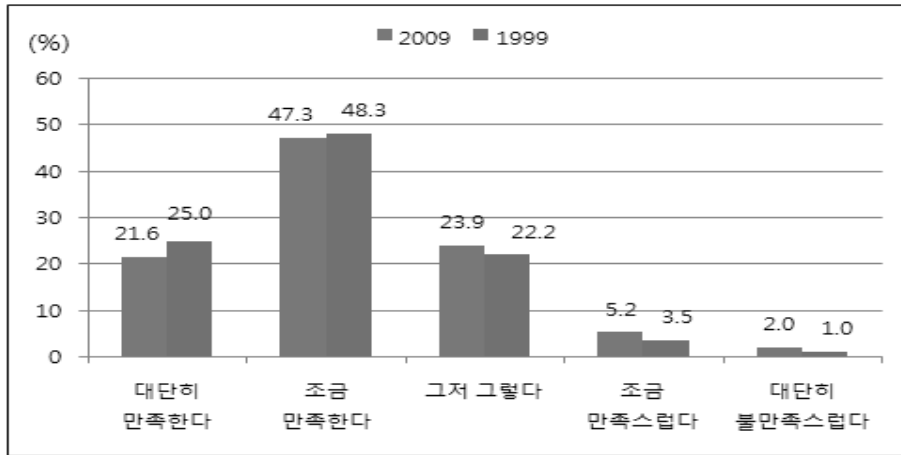
- 지역 축제를 참가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1999년의 경우 자가용(65.8%), 대중교통(23.9%), 관광버스(7.2%) 순이었는데, 2009년의 경우 자가용(61.7%), 관광버스(19.9%), 대중교통(8.7%)으로 나타나 자가용과 대중교통은 감소한 반면, 관광버스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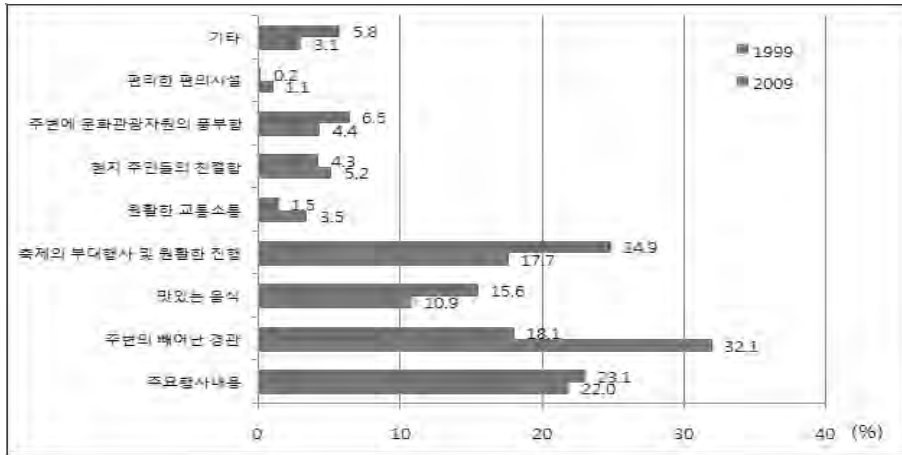
#### □ 축제 참가 만족도

-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지역축제 만족도는 1999년의 경우 응답자의 25.0%가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고, 48.3%는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은 73.3%이며,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반응은 22.2%, “조금 불만족스럽다” 3.5%, “대단히 불만족스럽다”가 1.0%로 부정적인 응답은 4.5%임.
- 2009년의 경우, 응답자의 21.6%가 “대단히 만족한다”, 47.3%는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가운데 68.9%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3.9%는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음. 또한, “조금 불만족스럽다”가 5.2%, “대단히 불만족스럽다”가 1.9%로 응답함.
- 따라서 축제 참가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감소한 반면, 부정적 응답이 199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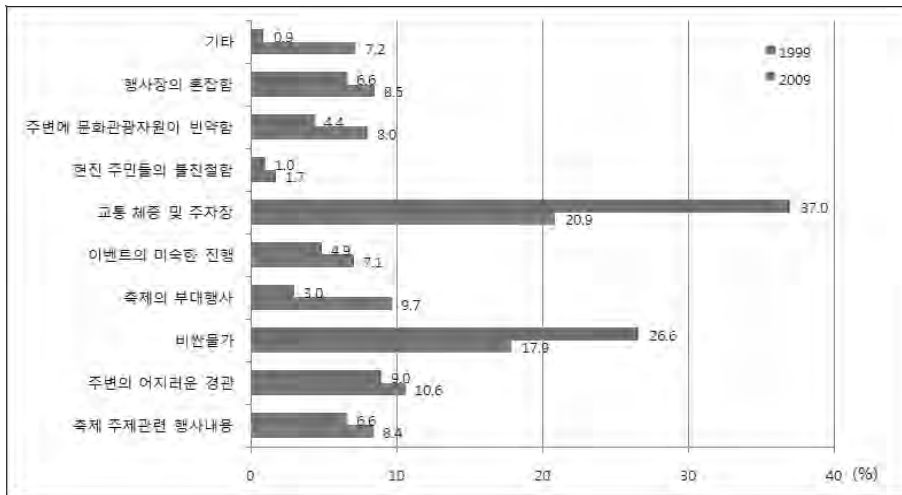
□ 참가 축제별 만족스러운 점

- 지역축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1999년의 경우,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2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요행사내용(23.1%)”, “주변의 빼어난 경관(18.1%)”, “맛있는 음식(15.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0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 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주요행사내용(22.0%)”, “맛있는 음식(10.9%)”,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9.6%)” 순으로 응답함.
- 이는 1999년에 비해 2009년의 경우 축제별 만족스러운 점으로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꼽은 응답자는 대폭 증가한 반면,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 맛있는 음식, 주요행사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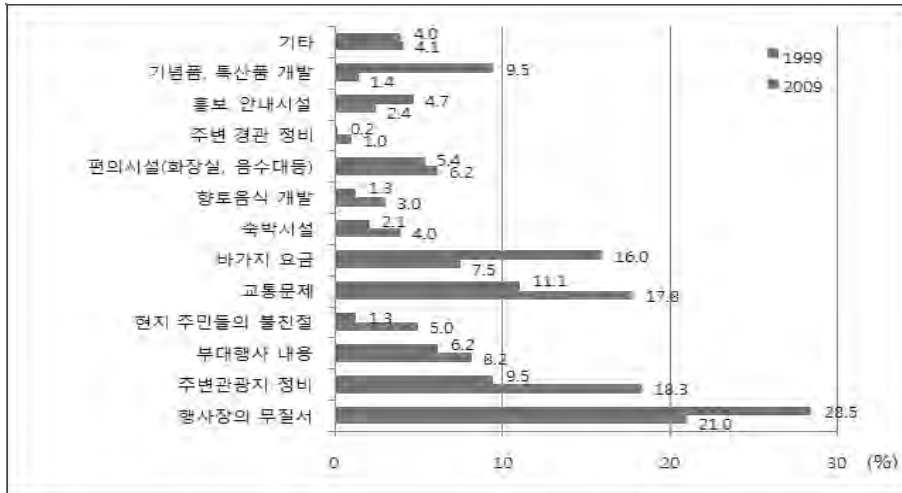
### □ 참가 축제의 불만족스러운 점

- 지역축제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인 37.0%가 “교통체증 및 주차장”을 꼽았고, 다음으로 “비싼 물가(26.6%)”,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9.0%)”, “축제 관련 행사내용 (6.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200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통체증 및 주차장(20.9%)”을 꼽았고 다음으로 “비싼 물가(17.9%)”, “주변의 어지러운 명소(10.6%)”, “축제의 부대행사(9.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이와 같이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교통체증 및 주차장”,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축제관련 행사내용”, “축제부대행사”,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빈약” 등에 대한 불만족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 전남 축제의 개선점

- 전남의 지역축제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인 28.5%가 “행사장의 무질서”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바가지요금(16.0%)”, “교통문제(11.1%)”, “기념품 및 특산품개발(9.5%)”, “주변관광지 정비(9.5%)” 순으로 응답함.
- 한편, 2009년의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사장의 무질서(21.0%)”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주변관광지 정비(18.3%)”, “교통문제(17.8%)”, “부대행사 내용(8.2%)” 순으로 나타남.
- 이 결과로서 바가지요금, 기념품 및 특산품개발 등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주변관광지, 교통문제 등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3) 의식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 축제에 관한 정보수집은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TV 등 매스컴(52.3%)”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9년의 경우 “친구나 지인(35.6%)”이라고 응답하여 축제에 관한 정보수집 경로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축제에 대한 정보가 축제 참가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방문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축제 방문시의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가용(65.8%)”이라고 응답하였고, 2009년에도 “자가용(61.7%)”이라고 응답하여 자가용이 주요 교통수단인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999년의 “관광버스” 이용자가 7.2%인 것이 2009년에는 19.9%로 증가하여 단체관광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됨.
- 축제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999년 73.3%에서 2009년 68.9%로 다소 감소하였음. 이는 축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에 있음을 보여줌.

- 축제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1999년은 “축제의 부대행사 및 원활한 진행(24.9%)”이었으나, 2009년은 “주변의 빼어난 경관(32.1%)”이라고 응답함. 이는 그동안 축제행사장 및 주변 경관정비는 개선되었으나, 음식개발, 행사내용이나 진행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진보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줌.
- 축제에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1999년과 2009년 모두 “교통체증 및 주차장(37.0%, 20.9%)”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비싼물가”는 1999년 26.6%인 반면, 2009년 17.9%로 다소 감소함. 이러한 결과는 행사장 주변여건이나 물가 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축제관련 행사내용 등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하였으므로 축제 내용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축제의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1999년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행사장의 무질서(28.5%)”라고 응답했는데 2009년의 경우도 “행사장의 무질서(21.0%)”라고 응답함. 이는 축제 행사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디자인강화를 통하여 이용측면이나 시각적인 면에서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IV.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 현재 개최되고 있는 많은 지역 축제들은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축제는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경우 자연자원, 문화자원은 풍부한 반면, 지역 주민이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민에게는 여가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지역문화와 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축제의 성공여부가 단순히 축제행사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나아가 지역 활성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이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축제의 주제선정과 성공적 개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므로 지역축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주민, 그리고 지역기업 등의 상호연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전남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1)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써 지역축제 개최

- 지속가능한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과 지역주민의 철학, 지역의 잠재력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야함. 특히 일시적인 행사장 치장이나 전시위주의 프로그램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확충이 필요함.
- 그런 점에서 축제 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축제의 테마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이 지역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괴리되어서는 안 되며, 총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2) 공간과 장소성을 살린 지역 고유의 독창적인 경관 연출

- 관광(觀光)은 본래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라면 관광의 의미는 반감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정책의 주요 전략은 타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자연자원, 문화자원이 지역별로 특성이 없고, 정주공간(시가지, 공공시설 등)과 축제 행사장 등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찾아내어 가로공간, 건물, 친수공간(Waterfront), 전통 문화공간 등을 그 이미지에 걸맞게 계획하고 디자인하여야 함.
- 이러한 기본적인 지역개성창조를 전제로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전시적 행사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지속될 수 있을 것임.

## (3) 지역축제 고유의 대표 이벤트 발굴·육성

- 축제의 행사나 내용적 측면에서 축제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축제가 내걸고 있는 테마 속에서 독창적인 이벤트를 발굴·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에 있음. 또한 테마는 차별성이 있다고 해도 이벤트 행사는 전통민속문화를 포괄적으로 공연 전시함으로써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행사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음.
- 축제가 지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그 축제가 가진 메시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와 상황에 따라 전개되는 의외의 퍼포먼스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표 이벤트 개발은 축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이벤트로 길놀이 퍼레이드(가장놀이)와 마당놀이행사 등이 있음. 이러한 이벤트는 무대 위가 아닌 축제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눈높이에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아울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축제의 취지와도 부합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 축제기금조성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마련

- 현재 축제의 재원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도비, 시비, 군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축제가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 같은 방법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자치단체, 지역의 상공인, 주민단체, 출향인 등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축제기금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간접적으로 축제행사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축제기간 동안에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기금조성을 위해서 향토적 관광기념품, 독창적인 이벤트, 테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5)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축제전문기구 설립

- 축제개최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그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발전의 방향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추진의 중심축이 되고 지역전문가, 주민단체(노인, 여성, 청년단체 등), 축제 및 지역계획관련 전문가, 지역의 각종 단체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 『축제추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런 기구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축제의 주체와 메시지가 지역계획 및 개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며, 지역발전과 축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의미에서 기 발행된 리전인포(본 연구원 발행)<sup>2)</sup>에서 제안한 축제기구의 재단법인화도 그 대안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7) 축제와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 축제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보다 더 큰 의의로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축제는 ‘문화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음.
- 축제개최기간을 지역의 연중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홍보의 기회로 삼고 지역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갈고 닦아서 선보이며, 지역주민의 인심과 최상의 서비스를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축제가 소모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창구가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8)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

-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체측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축제의 조직, 기획, 운영 등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

2) 광행구 외(2009, 6) 전남 지역축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모색, 리전인포 제179호, 전남발전연구원

- 지역주민의 참여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층의 참여는 미래의 잠재적인 축제 주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전통문화의 전승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층의 참여는 축제를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분위기를 유연하고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또한 축제가 지역주민의 대동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의 참여는 축제 분위기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임.

#### (9) 전체적으로 축제이미지의 통일성을 추구

- 행사장, 행사내용, 행사주최자, 지역민, 행사참여자 등이 전체적으로 축제의 성격에 걸맞은 분위기 연출이 요구됨. 특히 축제테마에 부합되는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을 때 축제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며, 각 장소별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안내판, 표지판 등 사인계획에 있어서도 축제의 주제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상징성, 조화성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축제가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벤트의 전략적 차별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축제의 주제에 부합한 행사 외에 잡다한 백화점식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걸맞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0) 축제를 전국화, 국제화하려는 노력 절실**

- 축제가 제한된 행사장이나 지역행사에 머물지 않고 전국화, 국제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련된 행사의 진행, 외지인, 외국인을 배려한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사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되며 아울러 홍보 및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벤트와 관광안내, 홍보, 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광가이드북, 팸플렛, 지도 등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함.
- 행사장 주변의 포장마차나 간이상점들이 축제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축제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지역특산품이나 향토음식과는 거리가 먼 일반 상점이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어 동네 축제처럼 인식되는 요인이 되므로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화, 국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1) 전남의 대표축제, 혹은 남해안 공동축제 발굴·육성**

- 본문의 설문조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남의 대표축제의 분야로는 “경관 및 생태환경축제(39.4%)”라고 응답한 것을 참고로 경쟁력 있는 기존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신규축제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남의 지역자원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해양자원<sup>3)</sup>을 테마로 한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국제바다음식축제(International Sea food Festival)와 같은 바다와 해안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재로 한 웰빙축제를 기획해 볼 필요가 있음.

3) 전라남도에는 리아스식해안과 수려한 다도해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데, 특히 섬(전국 62%), 해안(전국 50%), 갯벌(전국 44%, 세계5대갯벌), 천일염(전국 82%생산) 등 비교우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전남 뿐 아니라 경남의 해안도시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예컨대 경남(울산)에서 전남(영광)까지 해안선을 따라 해안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통해 관심유도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안도시의 지역 특성이 묻어나는 각종 향토요리, 신선한 활어, 젓갈, 발효식품, 건어물 등 다양한 해안지역의 독특한 웰빙음식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의 각종 특산물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이를 계기로 해안경관자원, 도서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관광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1)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송태갑), 1999. 8, 리전인포, 제48호, 전남발전연구원
- 2) 곽행구 외(2009. 6) 전남 지역축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모색, 리전인포 제179호, 전남발전연구원
- 3) 전라남도 홈페이지 : [www.jeonnam.go.kr](http://www.jeonnam.go.kr)

## 최근 <리전인포> 발간목록

- 제174호 전통어법을 이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김 준·박종오, 2009. 7)  
 제173호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도입을 위한 전남의 대응방안(박웅희, 2009. 7)  
 제172호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김대성·정 철·나강열, 2009. 6)  
 제171호 전남 귀농 활성화 방안(조창완, 2009. 6)  
 제170호 전남 지역축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모색(곽행구·이진형, 2009. 6)  
 제169호 전남 농식품산업 실태와 육성 대책(장덕기, 2009. 6)  
 제168호 지방소득·소비세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오병기, 2009. 5)  
 제167호 전남 해양천연자원의 이용과 개발 방향(김동주, 2009. 5)  
 제166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김대성, 2009. 5)  
 제165호 구하도(舊河道)의 보전·복원과 친환경적 활용(김종일, 2009. 5)  
 제164호 전남 은퇴자마을 수요분석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방안(나강열, 2009. 4)  
 제163호 주요 선진국의 탄소제로도시 조성 사례와 시사점(정 철, 2009. 4)  
 제162호 전남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방안(조상필·나강열·정 철, 2009. 4)  
 제161호 템플스테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김 준, 2009. 4)  
 제160호 전남의 성공적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u-City 서비스 활용방안(박웅희, 2009. 4)  
 제159호 녹지 및 경관정책에 관한 일본사례(송태갑, 2009. 4)  
 제158호 천일염산업특구의 생산자 의식 및 정책적 시사점(장덕기·김현철, 2009. 3)  
 제157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지역 활성화 전략(김종일, 2009. 3)  
 제156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제언(오병기·김현철·박웅희, 2009. 3)  
 제155호 무안국제공항 민영화 신중한 검토 필요(조상필, 2009. 3)  
 제154호 전남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조상필, 2009. 2)  
 제153호 농어촌 정기시장(5일시장)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김현철·오병기, 2009. 2)  
 제152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정책시사점(조창완, 2009. 2)  
 제151호 공예명품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최연수·김 준, 2009. 2)  
 제150호 전남 도서(島嶼)자원과 연계한 三國園(한국, 중국, 일본정원) 조성의 필요성  
 (곽행구·이 정, 2009. 1)  
 제149호 복지분야 국가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개선방안(박혜자·김대성, 2009. 1)  
 제148호 전남 연안환경의 특성 및 보전방안(김성수·김동주, 2009. 1)  
 제147호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남농업의 대응 방안(장덕기·조창완·조경철, 2008. 12)  
 제146호 전남 읍·면소재지의 중심기능 강화방안(조상필, 2008. 12)  
 제145호 다문화가정 급증에 따른 전남의 정책대응 방안(김대성, 2008. 12)  
 제144호 주요 선진국의 광역경제권 추진 체계 및 정책적 시사점(김현철, 2008. 11)

- 제143호 전남 농촌경관의 과제 및 개선방안(송태갑, 2008. 11)
- 제142호 청년실업 현황과 취업확대 방안(오병기, 2008. 11)
- 제141호 전남갯벌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현명한 활용(김동주, 2008. 10)
- 제140호 일본 휴가촌 모델을 적용한 국립공원내 친환경 리조트 조성(김종일, 2008. 10)
- 제139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김대성, 2008. 10)
- 제138호 체재형 주말농장의 활성화 방안(송태갑, 2008. 9)
- 제137호 전남 천일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김현철·장덕기, 2008. 9)
- 제136호 고유가가 전남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곽행구·오병기, 2008. 8)
- 제135호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모색을 위한 연구: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 추진을 사례로 (장덕기, 2008. 8)
- 제134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조상필, 2008. 8)
- 제133호 영산강 고수부지의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김종일, 김희근, 2008. 8)
- 제13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관련 보완대책(안)(이건철, 2008. 7)
- 제131호 이벤트를 통한 지역활성화: 일본 「가타림픽」,(갯벌올림픽) 사례(김 준, 2008. 7)
- 제130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역할 조명(김현철, 2008. 6)
- 제129호 서남해안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강창민, 2008. 6)
- 제128호 1조원대의 패류시장 경쟁력을 전남갯벌에서 찾자(김동주 外, 2008. 5)
- 제127호 슬로시티 지정지역의 경관관리(송태갑, 2008. 5)
- 제126호 전남 건설업의 부진과 대처 방안(오병기, 2008. 4)
- 제125호 보세판매장(면세점)운영 고시개정에 따른 지역활용 방안(조상필, 2008.4)
- 제124호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한 전남 대응전략(곽행구, 2008. 3)
- 제123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모델: 코란코브 리조트(김종일, 2008. 3)
- 제122호 천일염 식품화에 따른 염전의 문화적 가치제고와 천일염 명품화전략(김 준, 2008. 3)
- 제121호 호버크래프트(Hovercraft)와 전남의 관광·레저 활성화(김동주, 2008. 3)
- 제120호 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장덕기, 2008. 3)
- 제119호 경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송태갑, 2008. 2)
- 제118호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방안(조상필, 2008. 2)
- 제117호 2008년, 지속발전의 원년(김종일, 2008. 1)
- 제116호 국제 슬로시티(Slowcity) 가입 기본요건 및 지역발전 시사점(조상필, 2008. 1)
- 제115호 대도시 소비자의 식품구매 행태와 전남도 대응전략(조창완, 2008. 1)
- 제114호 국가기간교통망 제1차 수정계획 추진에 따른 전남지역의 대응전략(조상필, 2007. 12)
- 제113호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주요 탐방사례 소개(송태갑·곽행구, 2007. 11)
- 제112호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위한 과제(조상필, 2007. 10)
- 제111호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곽행구·송태갑, 2007. 10)

- 제110호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한 갯벌레포트 활성화(김동주, 2007. 10)
- 제109호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에 따라 유지작물인 유채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원 창출과 관광객 유치(김재철, 2007. 10)
- 제108호 전통 자염복원과 고부가가치 자원화(김종일, 2007. 10)
- 제107호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07. 7. 25)」 활용방안(전발연, 2007. 9)
- 제106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조상필, 2007. 5)
- 제105호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과제(김종일, 2007. 4)
- 제104호 서울시 녹색주차마을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정하욱, 2007. 3)
- 제103호 저밀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박준필, 2007. 1)
- 제102호 천연유산인 전남해안, 미래자원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고하자(김동주, 2007. 1)
- 제101호 광주·전남을 한반도 헬스케어 허브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본산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건철, 2006. 8)
- 제100호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혁신주체별 역할(조상필, 2006. 3)